

광주·서울시, 5·18 40주년 기념사업 공동 추진

기념음악회·국제컨퍼런스·기념특별전 순회 개최 등 이용섭·박원순 시장 화상 업무협약... 전국화·세계화 기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시와 서울시가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각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광주시-서울특별시 공동 주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광주시와 서울시의 업무협약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한편 그 의미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데 공동으로 나서기 위한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광주시와

서울시가 공동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와 서울시는 협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포함된 한 주를 민주인권주간(5월12일-5월18일)으로 정하고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와 서울시는 이 기간중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학술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40주년 기념음악회 ▲국제컨퍼런스 ▲서울의 봄 라이브 콘서트 ▲민주·인권·평화 도시 선언 전국대회 등이 열린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

별전시'를 서울기록원과 광주시 등 두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다. 역대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품을 재구성해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 5·18 특별전 전시'도 서울에서 열린다. 이밖에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담은 문학과 무용, 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공연도 광주와 서울에서 동시에 보인다. 특히 민주·인권·평화와 관련한 우수정책을 상호 교류해 도입하기로 했다. 애초 이날 이 시장과 박 시장이 광주시청에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주간의 '잠시 멈춤(사회적 거리두기)'을 실천하기 위해 화상 업무협약식으로 개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협약이 5·18 민주화운동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서울시는 민주·인권·평화에 앞장서는 도시로서 '5·18민주화 운동'을 과거 억압과 희생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화해·상생의 미래 가치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올해 제40주년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이 울분과 분노, 과거 속 광주에 머무르지 않고 승리와 축제, 화합과 통합의 5·18로 전 세계인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시와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광주 5·18에서 세계의 5·18로,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택시업계, 코로나 19 고통 분담 나서

법인택시조합, 종사자 격려금

광주지역 택시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고통 분담에 나섰다. 광주법인택시조합은 지난 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3~4월 운수종사자에게 10만~25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위해서다. 정등광 광주택시조합 이사장은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여해 준 업체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택시가 몰리는 공항, 송정역 등 승강장과 LPG 충전소에서 소독을 하고 있다. 종사자에게 소독약 3500개, 마스크 8000장, 손 세정제 1만1000개를 지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지원 강화

'1테이블 1플라워 운동' 운영 농어민공익수당 상반기 지급

전남도는 '코로나 19'로 인해 판로가 막힌 지역 농민들에 대해 농촌지역 감염 확산 차단, 농산물 판로확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가축시장 휴장에 이어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의 교육·문화강좌, 친환경농업 전진대회, 선진지 견학,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은 보류·중단했고, 농산물도매시장 3개소와 농어촌 민박업소 3244개소에 대해서는 방역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휴관을 보류하고 위생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해 농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테이블 1플라워 운동'과 '이동 화훼장터'를 운영해 지난 6일 기준 1억1800만원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힌 해남산 빨간배추 50t은 이랜드리테일과 협약을 체결해 전국 김스클럽 53개 매장에서 판매하고, 카카오, 위메프, 남도장터 등과 손잡고 할인 행사를 펼친다. 개학 연기로 출하가 지연된 친환경농산물은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를 통해 직거래와 함께 '남도장터'에 입점시켜 온라인 특별 판촉전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원한 전남형 농어민공익수당은 상반기 중 60만원 전액을 사·군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사용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키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9일 오전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사업 광주시-서울시 공동주최 업무협약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화상을 통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나눔·연대정신, 대구에 전하다

광주여성단체협·어린이집연합회 기부금 500만원·마스크 전달

광주 민간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지원하기 위해 나눔과 연대의 정신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여성단체협의회와 광주법인 어린이집 연합회가 잇따라 대구에 기금과 물품 지원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와 협의회 소속 합창단은 이날 대구여성단체협의회에 의료용 방호복 구입을 위한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와 대구여성단체협의회는 2014년부터 광주-대구 달빛동행 여성단체 교류사업을 통해 우호를 다져왔다. 이번 기금 전달은 대구지역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합창단원들은 심시일반으로 100만원을 모았다. 앞서 광주법인어린이집연합회는 법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직접 제작한 면 마스크 1000장을 지난 2일 대구법인어린이집연합회에 전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지' 공모

22개 시군 대상 20일까지

전남도는 2022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 대상으로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 대상지'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체전 종목 중 도내 시설 기반이 가장 취약한 스쿼시 종목의 전국체전 및 전국 규모의 개최가 가능한 공인 규격의 경기장 건립 예정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대상지는 부지 여건, 시설 계획, 재원 투자 계획, 운영 방안, 종목 자체 육성 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선정된 시·군은 총사업비 50%와 함께 국내외 행사와 동

호인 대회 유치·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이 완료되면 시·군 직영 또는 위탁으로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오는 2022년 '제103회 전국체전'을 도민 모두가 참여한 소통과 화합의 체전을 목표로, 주 개최지인 목포시와 도내 모든 시·군에 경기장을 분산해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사전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또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전국체전TF팀을 하반기에 전국체전기획단(1단 3팀 13명)으로 확대 개편해 대회 준비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보좌관 급여 착복' 시의원 복직 결정 재하고

광주시의회가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제명된 나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복직시키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재항고했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5월 나 의원의 제명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받아들인 광주지방법의 결정에 불복하고 재항고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제명 처분이 윤리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이다. 또 1심에서 나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아 나 의원이 직위를 잃은 상황이었음에도, 법원이 결과를 뒤집어 나 의원이 복

직하면서 혼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나 의원은 자신이 부당해야 할 보좌관 급여 880만원(월 80만원)을 해당 보좌관이 시의회에 대납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제명됐다. 나 의원은 시의회에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을 냈다. 나 의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이 중지됨에 따라 4개월 만에 복직했으며, 1월 그 자리를 이어받은 최미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은 2개월 만에 직위를 내려놓게 됐다. 분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